제7강 권지예 「정육점 여자」

권지예 「정육점 여자」/ 2002『꿈꾸는 마리오네뜨』

1. 작가연보

1960년 경주 출생,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
1991년 프랑스 유학, 빠리 7대학 동양학부에서 박사학위 받음
1997년 <라쁠륨>「두 개의 꼭두각시 인형」,「상자 속의 푸른 칼」로 두 번 추천받아 등단
2002년「뱀장어 스튜」로 이상문학상 수상
작품집『꿈꾸는 마리오네뜨』,『폭소』,『권지예의 빠리·빠리·빠리』,『꽃게 무덤』등

2. 주요 발표 작품의 경향 및 특징

빠리와 그림 이야기를 모티브로 애정과 갈등이 반복된 부부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다. 거기서 권지예가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자기정체성과 자기성찰이다. 「정육점 여자」에서도 그러한 권지예의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. 베이컨의 그림에서 모티브를 얻어 썼다는 「정육점 여자」에서도 어김없이 빠리와 부부 이야기가 등장한다.

3. 줄거리

나는 가끔 여자를 사러 홍등가로 간다. 아내가 두 번째 유산을 하고 온 날 나는 유학 당시 룸메이트였던 '김'으로부터 라라의 죽음을 통보 받는다. 정육점 냉동고에서 한국인 남자와 함께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. 라라는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되어 정육점을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한 여자다. 예전 파리 유학 당시 나는, 한국에 대한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정체성에 흔들려하던 라라와 깊은 관계를 맺었었다. 나를 홍등가로 이끄는 것은 체리빛 불빛인지도 모르겠다. 그것이 정육점의 불빛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.

4. 플롯 구조

현재 - 과거 - 현재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5. 시점
1인칭 주인공 시점

6. 문체의 특징
세심한 관찰과 속도감 있는 문장

7. 묘사력
<그림을 그리는 듯한 사실적 표현>
- 뼈에 붙은 살을 공들여 파먹는 과정 또한 색다른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. 마치 무슨 발굴작업에 참여한 것 같은 진지한 몰입, 또는 시체를 뜯는 구미호가 된 듯한 엽기적인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. (p65)

- 가늘고 긴 눈. 아름답다는 느낌보다는 초승달을 보듯 애틋하고, 살짝 꽃잎을 벌린 꽃봉오리처럼 강렬한 신비감을 자극하는 눈빛이었다. (p69)

- 건물에 필요한 모든 관을 일부러 바깥으로 꺼내놓은 그 괴기스런 건축물을 볼 때마다 창자가 드러난 거대한 짐승의 몰골을 보는 것 같았다. 사람들을 실은 에스컬레이터가 외벽에 붙은 투명한 튜브 같은 통로로 내다보인다. 사람들이 마치 거대한 연동 운동을 하는 거대한 창자 속에서 소화되는 음식물 부스러기처럼 흘러가고 있었다. (P70)

- 낮인지 밤인지 구별이 안 되는 빠리의 어두컴컴한 겨울 하오의 하늘 밑에서 그 가게 안의 꽃분홍 조명은 멀리서 보면 마치 진홍빛 연못에 떠 있는 연꽃무리처럼 떠보였다. (P71)

<함축적인 표현>
나를 이끄는 것은 체리빛 불빛인지도 모르겠다. 나는 여자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리의 불빛을 따라 부나비처럼 빨려 들어간다. 등 뒤에서 기차소리가 들려온다. (P84)

▶ 원초적 본능인 식욕과 성욕을 소설의 주요 소재로 사용

8. 에피소드의 적절성
<무정자증인 주인공과 두 번 유산한 아내>
- 한국으로 돌아와 재혼한지 2년째. 처음부터 고백을 했어야 했을까. 이제라도 아내에게 고백을 해야 할까. 난 아기를 만들 수 없는 남자라고. 무정자증. 보르도에서 함께 살던 첫 아내는 아기를 무척 갖고 싶어 했다. (중략) 6년을 살면서 아이가 없자 둘은 불임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 보았다. 문제는 내게 있었다. 지금의 아내가 결혼 8개월 만에 아기를 가졌다고 했을 때 나는 도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. 아기를 낳게 할 수는 없었다. 아내를 한번만 용서하자고 입술을 물었다. 두 번째인 이번엔 아내를 죽이고 싶었다. (P82)

<괴기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개, 소, 인간을 그리는 '김'>
- 방에는 어느새 개 그림으로 가득 찼다. 한데 개들은 몽땅 매달려 있었다. 올가미에 걸려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개들의 그림들이 벽에 하나씩 붙기 시작했다. (p66)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-도살된 소의 이미지에 매달렸다. 거기서 더 나아가 정육처럼 해체된 인체를 그리기 시작했다. 마치 냉동고의 고기처럼 사람이 발가벗고 매달려 있거나 팔다리가 끊기고 내장이 드러난 인체를 일상적인 배경에 배치한 괴기스런 그림들이었다. (p73)

<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하는 프랑스로 입양된 라라>
- 나는 여섯 살에 노르망디에 있는 불란서 가정에 입양되었어. 대학을 빠리에 와서 다닐 때 한국유학생들을 간혹 만날 수 있었지. 내게 접근한 남자들이 많았지.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남학생들은 더 그랬지. 나 또한 그들을 통해서 내 뿌리를 알고 싶었고. (p77)

<정육점 남자 무슈띠에의 이야기>
- 난 누구일까요? 내 안에도 내가 모르는 기억들이 많이 내장되어 있겠죠. 난 가끔 두려워요. 아마도 난 한국에서 아주 많이 불행했던 것 같아요. 왜 불행한 기억은 빨리 잊으려는 인간의 심리가 있잖아요? 한국에서의 일은 그냥 백지에요. (p78)

- 당신이 어쩌면 내 안의 기억의 코드를 일깨워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두려워. 단서가 될 만 한건 아무것도 없어. 다른 입양아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한국서 부모를 찾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. 양부모와 살던 집에 불이 난 적이 있대. 그 통에 없어졌는지도 모르지.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반복되는 이미지들이 떠올라. 냉동고에서 미친 듯 키스를 하던 날부터였나봐요. 어디선가 기차소리가 들리고… 내 주위에 여자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. 여자들의 분 냄새, 그리고 잠들면 감은 눈 위로 분홍빛의 물살이 동심원을 그리고… 난 그런 곳에 살지 않았을까. 먼 옛날 당신의 나라에서 나는. (p78)

- 라라는 냉동고에서 시체를 발견되었대. 어떤 남자와 깍지를 끼듯 껴안고서 말이지. 그 남자의 신원은 한국인이라고 밝혀졌다나 봐. (p.84)

9. 뫼비우스의 띠처럼 읽힌 소재

* 빠리(=인종의 전시장=자기정체성 상실)

	나	라라	김
빠리에서의 현실	아내와의 이혼	정육점 여자	괴기스런 그림
정체성 상실의 이유	무정자증	입양	살육
상실의 치유	홍등가로 감	한국인 남자와의 죽음	십자가 처형

* 나 : 피해자 → 가해자 → 피해자
라라 : 피해자 → 가해자 → 피해자
김 : 가해자 → 피해자
무슈띠에 : 피해자 → 가해자 → 피해자

▶ 모두가 피해자로 귀결되는 비극적 구조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10. 주제

시대와 내면적 상처를 통한 자기 성찰 (자기정체성)

11. 총평 및 장단점

이 소설은 입양, 5·18 민주화운동(p76: 빛고을이라 불리는 한국의 남쪽 도시, 봄빛 찬란한 5월), 불륜 등 과거와 현재의 시대적 문제를 많은 상징들 속에 함축시켜 놓았다. 내면적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 한 의도는 좋았으나 그것이 너무 복잡해 단편에 담기엔 다소 과한 면도 있다. 사람들에게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각각의 에피소드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여러 번 소설을 읽어야만 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흐름은 매끄러운 편이다. 그림을 그리는 듯한 리얼한 묘사와 속도감 있는 빠른 전개, 함축적인 문장 또한 놀랍다. 신비로운 분위기와 독특한 표현, 문장력까지 감안한다면 분명 잘 쓴 소설이라 할 수 있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